



환자안심병원 전문자원봉사자 ‘엄마손 봉사단’ 출범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환자안심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전문자원봉사자 ‘엄마손 봉사단’이 출범했다. 엄마손 봉사단은 우리 전통문화인 품앗이 정신을 본받아 이웃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봉사단원을 모집하였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3월 12일(화), 13일(수) 양일에 걸쳐 환자안심병원의

취지 및 운영사항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총 34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하였고, 1일차에는 환자안심병원 소개,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제세 환자관리 실무, 2일차에는 감염교육, 실무교육, 봉사자 단위 모임을 진행하였다. 교육 후에는 수료식과 병원 라운딩이 이어졌다. 엄마손 봉사단의 역할은 식사보조, 환자 이동지원, 심부름, 위생관리 등 환자안심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 안정을 위하여 산책 및 독서 등을 통한 정서활동에도 도움을 주어 안정감 있는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봉사단은 지난 3월 18일(월)부터 총 30명이 환자안심병원에 투입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을 통해 환자안심병원 조기정착 및 건강한 나눔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2012 언론보도집 제작

홍보팀은 지난 한해 의료원의 언론보도 실적을 모은 ‘2012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을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된 언론보도집은 신문매체인 일간지, 의학전문지, 지역지와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를 포함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서울의료원의 업적과 행보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은 (사)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최초로 발간된 ‘2010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2011년 발행) 이래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언론보도집은 4×6배판 크기에 총 571면으로 제작되어 원내는 물론 서울시,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배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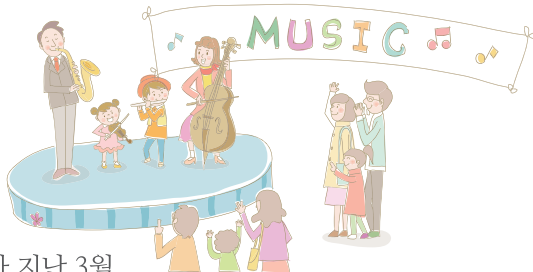
‘무료가훈 써주기’ 행사 개최

서울의료원은 지난 3월 9일(월), 10일(화) 양일간 원내 1층 로비에서 ‘무료가훈 써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훈을 통하여 환우 및 내원객의 쾌유와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고자 계획하게 됐다. 행사는 한국가훈연구원 양태상 원장을 초청하여 원내 1층 로비(영상의학과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무료가훈 써주기 행사는 국전에 입선한 양태상 원장이 직접

무료로 가훈을 써주어 환우 및 내원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양태상 원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인 서울의료원에서 매년 가훈 써주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 한해도 가훈을 통해 가정의 전통을 잇고 소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서포터스 봉사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문화생활을 하기 힘든 환우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을 위해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뜻을 모아 지난 3월 29일(금)부터 문화공연을 시작하였다. 이번 정기공연은 서울시립대학교 ‘나눔 서포터스’ 재능기부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에 1층 로비에서 약 30분 정도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은 서울시립대학교 동아리 4개팀이 참여하여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나눔서포터스 봉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의료원에서 병동환자 지원, 외래진료 지원, 이동도서실, 환자편의지원 동행서비스,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해외진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4월 공연일정

● 문의전화: 사회복지실 (02)2276-7731~3

공연일자	공연시간	동아리명	공연내용	공연장소
4월 5일(금)	12:30 ~ 13:00	칸타빌레	오케스트라	1층 로비 (푸드코트 앞)
4월 12일(금)		프리즘	마술 공연	
4월 19일(금)		트루츠	노래 공연	
4월 26일(금)		새벽을 알리는 소리	중창 공연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포켓북 배포



적정진료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대비하여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지침 포켓북을 제작하였다. 이번 책자는 오는 4월로 다가온 평가를 위해 직원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인증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침 포켓북은 의료진(의사 / 간호사)용과 공통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직종별로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지침 포켓북은 지난 3월 26일(화) 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됐고, 추가요청 있을 경우 적정진료팀(내선 7029)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직원 소개] 새로운 서울의료원 가족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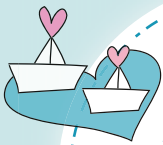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김종규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부터 서울의료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재활의학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서울의료원의 한 식구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더욱 더 행복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재활의학 중에서도 소아재활, 척수손상재활, 근골격계 통증, 암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암재활이라는 분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암 치료 이후에 생기는 림프부종, 연하곤란 등의 문제를 치료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은 언제나 삶의 질을 생각하는 분야이고, 특별히 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살필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역할 중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 가족들의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아직은 많이 어리둥절하고, 어색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고객과 내부고객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재활의학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계약심사팀 공보은

안녕하세요~ 2013년 2월 25일부로 서울의료원 근무를 시작한 계약심사팀 의공기사 공보은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의용공학과를 전공하였고, 서울의료원에 오기 전, 건국대학교병원 의공학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며 짧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의료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의료장비 구매의뢰 관련 스펙검토, 의료기관인증제도 관련 행정업무, 의료기기 예방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항상 배우는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공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의료기기관리실에 소속되어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 및 운영보강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서툰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환자와 의료진에게 믿음·신뢰·확신을 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일조하는 의공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남귀자(병동간호팀, 3월 4일)
허은희(건강증진센터, 3월 9일)
송민선(계약심사팀, 3월 13일)
함영하(고객지원팀, 3월 16일)
이순복(병동간호팀, 3월 16일)
김정원(교육연구부, 3월 30일)
진보연(외래간호팀, 3월 30일)



인사이드

3월 송숙희(내과 주임과장 임명)
이신영(비뇨기과 주임과장 임명)
김지훈(이비인후과 주임과장 임명)
임병호(정형외과 과장, 의료정보팀장 겸직)



교육 연수

국내 김영애, 정주원, 이준성, 전보원(3월 2일, 서울성모병원) 2013년 제 1차 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연수강좌
김홍철(3월 9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13년도준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해외 안진영(3월 5~10일, 이탈리아) 2013 AD/PD 참석
김정희, 장세연(3월 20~25일, 인도) 아시아 태평양 뇌종양학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3.1. 정지웅(외과) 정인선(마취통증의학과) 김한범(응급센터) 김여은(영상의학과)
황윤승, 황동경(병동간호팀) 장말숙(외래간호팀) 조은하(강남분원) 윤연미(식당)
3.4. 류재현, 최진실(건강증진센터) 구본승(특수간호팀) 장미정(공공의료지원단)
3.5. 김영남, 위정희(식당) 3.6. 김문희, 장우태(건강증진센터) 3.8. 배준용(내과)
3.11. 박영옥(정형외과) 김종규(재활의학과) 강이슬, 임지혜(외래간호팀) 김윤주, 강인희, 최고은,
박세령, 문은주(특수간호팀) 전소영, 신민, 정유나, 김민정, 정세이, 김소연, 노은혜, 김성희, 정혜선,
김은, 정다운, 신유진, 이효진, 정지민, 서지윤, 김수정(병동간호팀)
서정희(원무심사팀) 한정희, 유미옥, 김화자(식당)
3.18. 신성기(정형외과) 권지수(외래간호팀) 박다현, 송누리(특수간호팀)
강수연, 박현선, 이수진, 김정흠, 이경아(병동간호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1. 김영지(특수간호팀) 3.8. 이상림(건강증진센터)
3.11. 이채리(병동간호팀) 김형주(교육연구부)
3.12. 김문성(교육연구부) 3.18. 홍선영(병동간호팀)

강남분원
외과신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과를 신설하여 진료를 시작합니다.
담당 전문의는 동부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하였던 소윤섭 과장님이며, 전문진료분야는 대장항문, 탈장입니다.
※ 진료 예약 및 문의: 강남분원 02-3430-0261 (전체 진료과 시간표는 홈페이지 <http://kn.seoulmc.or.kr> 참고)

오전진료: 월, 수, 금
오후진료: 화, 수, 목



서울의료원 신축이전백서 발간

서울의료원의 신축이전과정을 담은 백서가 지난 3월 20일(수) 발간되었다. 이번 ‘서울의료원 신축이전백서’ 발간을 통해 변화된 의료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신축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서울의료원의 이전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서울의료원은 강남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강북에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1년 5월 25일(수)에 30여년의 강남구 삼성동에서의 진료활동을 뒤로

하고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여 정식개원식을 가졌다. 백서에는 신축이전 준비과정에서부터 개원식 준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수록됐다. 총 55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신축병원개요’편, 2부는 ‘신축관련 업무활동’편으로 구성됐다. 김민기 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이 신축이전과정을 담은 백서를 통해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달라진 모습과 위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백서 발간에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유공직원 서울특별시병원회장 표창



지난 3월 22일(금) 63빌딩 별관 3층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의료원 이인덕 간호부장과 홍보팀 지승준 사무관리사가 서울특별시병원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그동안 환자안심병원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참여하여 서울시민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또한 홍보팀 지승준 사무관리사는 환자안심병원 홍보를 담당하여 서울시 정책사업인 환자안심병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하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환자안심병원에 힘써준 모든 병원직원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심병원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무심사팀 접수수납 창구 재배치

의료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동선과 수납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원무심사팀 접수수납 창구 위치를 재조정하여 지난 3월 16일(토)부터 24일(일)까지 병동부(사회복지실 앞) 접수/수납창구를 확장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월)부터는 모든 창구를 정상운영하고 있다.

층수	위치	업무(창구번호)	
		변경 전	변경 후
1층	중앙진료부 (메인창구)	- 의무기록사본발급(1)	- 접수/수납(1~9)
		- 제증명(2)	
		- 입/퇴원(3~4)	
		- 접수/수납(5~9)	
	병동부 (사회복지실 앞)	- 접수/수납(1~4)	- 의무기록사본발급(10)
			- 제증명(11)
			- 입/퇴원(12~14)

중랑구 셔틀버스 운행구간 연장



중랑구 주요 3개 지하철역을 운행하는 서울의료원 중랑구 셔틀버스가 지난 3월 12일(화)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인근에 위치한 북부병원까지 운행노선이 연장되어 운행한다. 이번 운행구간 연장은 서울시 산하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행노선은 **서울의료원(신내동)-상봉역(7호선)-중화역(7호선)-봉화산역(6호선)-서울의료원(신내동)-북부병원** 코스로 순환·운행된다.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1회차를 시작해 오후 4시 7회차까지 일일 7회 운행된다. 또한 강남분원과 서울의료원을 이어주는 강남구 셔틀버스도 운영 중에 있다. 운행노선은 **서울의료원(강남분원)-수서경철서(신설)-일원1동주민센터(신설)-수서역(3호선,분당선)-서울의료원(신내동)**을 순환·운행된다.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일정으로, 오전 9시와 오후 1시30분 강남분원에서 신내동 본원까지 운행된다. 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방송촬영이 지난 3월 17일(일) 서울의료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주말드라마는 ‘내 딸 서영이’의 후속작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뜻하지 않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 엄마와 막내딸의 행복찾기와 그녀의 사랑이야기를 다루며, 배우 조정석과 가수 아이유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다. 서울의료원은 많은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KBS 2TV 주말드라마를 통하여 원내 진료시설 및 편의시설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촬영을 결정했다. 이번 촬영한 내용은 지난 3월 23일(토) 주말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됐다.

[북부병원 소식]



북부병원, 건보공단 중랑지사와 지역사업장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지난 3월 22일(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지사장 장석진)와 협약을 체결했다. 병원은 협약을 통해 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중랑 우체국을 건강증진 사업장으로 지정해 우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랑 우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북부비만,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1차 측정과 함께 건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강좌도 병행한다. 3월 25일(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대상자의 체계적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관리 SMS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용진 북부병원장은 “성인 인구의 1/3가량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의 유관 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습관 개선에 기여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병원 소식]



동부병원, 시민위원회 개최

지난 3월 14일(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3층 회의실에서 첫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철수 시의원, 김경희 성동구보건소장, 안승준 동대문보건소과장과 시민위원들은 동부병원의 2012년 활동결과와 2013년 계획을 보고 받고 김경일 원장 주재 하에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 가야할 발전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위원회는 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시민 참여는 상호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민간병원과 구분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민 참여는 운영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경영에 참여하는 병원이 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병원은 보다 선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시민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경일 동부병원장은 “병원이 지역주민들과 상호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되며 다른 민간병원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소식]

서울시립남서울생활미술관 개관기념전

(Craft Masters Today-제17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초대전)

- 장소: 남서울미술관
- 일시: 3월5일~5월12일[화~금 10시~20시 / 토,일,공휴일 10시~18시(월요일 휴관)]
- 부문/작품수: 전통공예 및 전통주 / 200여점
- 참여작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장인 23인
- 전시내용:
 - 우리나라 전승문화의 살아있는 기록인 무형문화재 장인의 전통공예작품 및 서울을 대표하는 술로 지정된 세 가지 전통주로 구성된 전시
 - 서울무형문화재의 전통공예작품이 현대적 연출과 어우러져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 관람료: 무료
- 주최 및 후원: 서울시립미술관
- 문의: (02)2124-8938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광화문희망 나눔장터’

- 장소: 5호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
- 일시: 3월17일~10월27일[매주 일요일 12시~16시 (혹서기 7, 8월 제외)]
- 내용: 나눔장터(벼룩시장, 재사용장터, 재사용기업장터, 아트광장 등), 농부의 시장 등
 - ※ 매주 셋째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 장터로 확대하여 외국인벼룩시장, 동물시장, 열린예술극장, 사회적기업장터 등 다양하게 운영
- 참가신청: 광화문희망 나눔장터 홈페이지 ▶ 판매참가, 재능나눔
- 홈페이지: fleamarket.seoul.go.kr
- 문의: (02)2115-7331

언론에 소개 된 서울의료원

- 신문
 - 헬스코리아뉴스(2013.03.03): 공공병원, 차별화만이 살길이다.
 - 동아일보(2013.03.11): 식사수발서 목록까지... 딸같은 간호사, 고마워요
 - 매일경제(2013.03.11): 서울의료원, 취업 탈북자도 의료비 감면
 - 아시아투데이(2013.03.11): 서울의료원, 취업 탈북자 의료비 최대 80% 면제 혜택
 - 연합뉴스(2013.03.11): 서울의료원, 취업 탈북자 의료비 감면 혜택
 - 이투데이(2013.03.11): 서울의료원, 취업 탈북자에게 총 진료비 반값 지원
 - 중앙일보(2013.03.20): 간병인·보호자 필요없는 서울의료원... 문제는 재원
- TV(시사 및 교양)
 - MBC ‘이브닝뉴스’(2013.03.11): 서울의료원 탈북자에게 무상의료
 - TBS교통방송 ‘예민수의 시사각각’(2013.03.15): 모두가 만족하는 안심병원(출연: 이인덕 간호부장)
 - KBS 1TV ‘취재파일 4321’(2013.03.24): 신음하는 공공의료(인터뷰: 서재성 기획조정실장, 김희정 사회복지사)
- TV(드라마)
 -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2013.03.23)
 - SBS 주말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2013.03.23)
- 라디오
 - 방 송 사: TBS 교통방송 95.1Mhz
 - 프로그램: 라디오를 켜라! 나선희입니다. 코너명:『서울의료원 건강주치의』
 - 기간: 3월 1일 ~ 15일
 - 출연: 비노기와 이신영, 재활의학과 오주선, 피부과 김현정



[특집 기고 - 꿈의 병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

동부병원은 일제 강점기에 서울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지금의 국립의료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시립병원으로서 동대문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동쪽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 노릇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거의 대개가 민간병원이라서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정도로 비싼 치료비를 요구할 때 상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했던 동부병원은 영세 서민환자들의 확실한 의료 안전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료보호환자와 행려환자, 노숙자들을 위한 전문 진료기관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동부병원을 가난한 이들을 찾는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목, 28명의 전문의, 250명의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건물 안전관리가 확실하다고 동대문구 관내에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고, 최신의 씨티(CT), 엠알아이(MRI)를 비롯하여 온갖 초음파 장비, 레이저 장비에, 완벽한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는 검사실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정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도 국립암센터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동부병원이 자랑할 것은 시설과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명의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성한데 없이 온 몸에서 땀나고 거칠어 보통 사람들은 꺼리는 환자들을 다정하게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시는 봉사자들을 보노라면 성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병원을 특별한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분들이야말로 하느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 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동부병원이 더욱 특별해 질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린 서비스디자인이 리모델링에 반영되면 외래진료실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 보호자 등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가정의학과와 인턴 수련을 경희대학교병원과 협력체제를 갖추어 보다 완벽한 입원 돌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밤늦게 퇴근한 직장인과 학생, 주부 등 어떤 가족구성원도 늦은 시간까지 진료해드리는 저녁 진료실을 가능한 빨리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병원 중에는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더러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에서도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을 담당하는 전문의 수를 늘려서 토요일밖에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내시경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간이 없어서 내시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새로이 정비하겠습니다. 공적인 도움이나 사적인 도움을 연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세 가지 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공은 공유입니다. 누구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직원과 환자와 시민이 소통하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공생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의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말씀이 생깁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함께’란 말이 추가되어야 한다면요? 동부병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격려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김경일